
총재 서문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의 악화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 통화긴축 강화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었습니다. 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이 급등한 데다 수요압력까지 더해지면서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10월 이후 PF-ABCP 시장 불안에 따라 단기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신용 경계감이 높아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도 금융안정과 취약부문 지원에도 유의하며 통화정책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높은 물가 오름세 지속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2022년 중 7차례에 걸쳐 1.00%에서 3.25%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되고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더 큰 손실이 초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장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금융·외환시장 불안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연

말 경에는 물가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고 금융시장도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교한 정책대응을 뒷받침하고자 조사연구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고물가·고금리의 영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였으며, 지역경제와 경제환경의 중장기적 변화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국가경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연구보고서의 대외 발간을 확대하고 블로그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은행이 생산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공유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국민들께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정책과 업무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도 크게 확충하였습니다. 내부경영에 있어서는 사회적 책임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개방적·수평적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해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연차보고서는 2022년 중 우리나라 금융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한국은행의 업무와 경영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히 연중 전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고 여타 자료와의 연계성도 높임으로써 보다 친절한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경제와 한국은행의 업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3월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이창용